

著述을 통해서 본 元曉의 思想

福士 慈稔 *

〈目 次〉

- | | |
|---------------------------|-----------------------------|
| 1. 들어가는 말 | 4. 元曉著述에 引用된 經論으로 부터 본 著述年次 |
| 2. 元曉의 現存著述 중 新譯引用 著述의 年次 | 5. 元曉의 著述과 그 思想 |
| 3. 諸史料로부터 본 元曉의 著述年次 | 6. 結 語 |

1. 들어가는 말

元曉의 著述을 통해서 그의 思想을 살피는 것은 이미 여러 先學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또한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研究方法이다. 그러나 그것은 元曉의 하나의 著述, 또는 그것과 관련된 두세 著述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元曉의 모든 著述을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檢討하는 研究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물론, 百卷이 넘는다는 元曉의 著述 중에 現存하는 것은 약 20部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모두 이용한다고 해서 과연 元曉 思想의 根幹을 파악할 수 있는지도 疑問이지만, 現段階로서는 現存하는 것 전체를 이용하지도 않고 研究한다면 그것은 단지 리포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現存하는 모든 著述을 가지고 考察한다고 해서 과연 참으로 元曉 思想의 根幹에 到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筆者는 疑問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思想家라 할지라도 그 思想이 처음부터 일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 培材大學校 日文學科 助教授

어떠한 機緣에 의해, 즉 자신의 內部로부터 또는 外部의 時代的 요청에 의해 變化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傳記의 정리는 필수적이며, 傳記를 정리했을 때 비로소 元曉著述의 時代的 意味 혹은 意義가 명확해지고 元曉 思想의 概要가 밝혀진다고 생각한다.

歷史研究의 分野에서도 諸種의 史料를 가지고 元曉의 여러 傳承記錄을 再檢證하며 각각의 史料의 存在意義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先學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史料의 制約 탓인지 아직도 元曉傳의 全貌를 밝혔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在로서는 元曉傳記研究 및 新羅佛敎史研究가 불충분하고 元曉의 傳記나 芬皇寺에 關해서도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思想을 研究하는 一部學者에 의해 『三國遺事』 元曉不羈條의 「芬皇寺에 住하여 華嚴經疏를 著述하다가 第四廻向品에서 絶筆하였다」·「세상을 떠나자 聰이 父의 遺骸를 갈아서 眞容의 塑像을 만들고 芬皇寺에 安置하였다」는 元曉와 芬皇寺의 關係에 착안하여 史料의 提示 없이 「芬皇寺系」 등의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本研究는 종래 元曉研究의 限界를 打開하고, 傳記研究와 思想研究가 個別的으로 이루어져 온 데서 생긴 弊害를 是正하여, 傳記研究와 思想研究의 兩面으로부터 元曉의 思想을 파악하려는 試驗的인 研究이며 方法論의 提示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本稿의 「著述을 통해서 본 元曉의 思想」이라는 제목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목하에서는 개개의 著述을 통한 研究만으로는 元曉의 思想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뿐이다. 筆者는 元曉의 著述로부터 그 思想을 고찰할 때 가장 重要한 것이 著述의 前後問題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元曉의 傳記를 밝혀서 提示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면의 한계상 傳記에 關한 筆者의 詳細한 見解는 後日에 報告하기로 한다. 本稿에서는 傳記의 問題點도 念頭에 두겠지만 우선은 元曉의 現存著述 중 新譯의 引用을 기점으로 元曉의 著述을 區分하고 다음으로 元曉의 著述에 引用된 經論을 통하여 著述年次를 總合的으로 推定한다. 그리고 元曉 思想의 變遷, 特히 衆生觀의

變遷을 元曉著述에 引用된 經論으로부터 推定한 著述年次에 적용했을 경우, 그 變遷이 兩者 모두에 妥當한가를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방법의 약간의 問題點을 서술하고자 한다.

2. 元曉의 現存著述 중 新譯引用著述의 年次

諸目錄에 기록된 것을 整理한 先學의 研究에 따르면, 元曉의 著述은 百卷이 넘는다. 그 중에 現存하고 있는 것은 二十一部이다. 以下에 그 著述과 玄奘(602~64)의 新譯經論과의 關係를 보면

- (一) 發心修行章—新譯引用 없음
- (二) 起信論別記—瑜伽師地論(以下瑜伽論)、解深密經
- (三) 二障義—瑜伽論、顯揚經論
- (四) 梵網經菩薩戒本私記(上卷만 存)—瑜伽論、成唯識論
- (五) 菩薩戒本持犯要記—瑜伽論
- (六) 大乘六情懺悔—新譯引用 없음
- (七) 解深密經疏(序文만 存)—解深密經
- (八) 菩薩瓔珞本業經疏(序文·下卷만 存)—瑜伽論、顯揚經論
- (九) 大乘起信論疏—瑜伽論、顯揚教論、解深密經、廣百論
- (十) 大慧度經宗要—瑜伽論、解深密經
- (十一) 法華經宗要—大乘阿毘達磨雜集論、瑜伽論、解深密經
- (十二) 涅槃經宗要—瑜伽論、俱舍論
- (十三) 彌勒上生經宗要—瑜伽論、俱舍論
- (十四) 阿彌陀經疏—瑜伽論、解深密經、俱舍論
- (十五) 無量壽經宗要—瑜伽論、解深密經、成唯識論
- (十六) 中邊分別論疏(卷三만 存)—成唯識論、俱舍論、大毘婆娑論
- (十七) 金剛三昧經論—瑜伽論、顯揚經論、解深密經
- (十八) 判比量論(一部·跋文만 存)—成唯識論
- (十九) 十門和諍論(斷片)—瑜伽論、顯揚經論
- (二十) 華嚴經疏(一部만 存)—新譯引用 없음
- (二十一) 遊心安樂道—瑜伽論

다만, 마지막(二十一) 遊心安樂道는 元曉沒後 元曉에 假託하여 日本에서 著述된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元曉著述에서는 제외하고, 나

머지 二十部の 現存著述을 대상으로 논하려고 한다.

以上과 같이 元曉의 著述 中에 顯揚經論(646年 譯出), 大乘阿毘達磨雜集論(646年), 瑜伽論(648年), 解深密經(649년까지는 譯出됨), 廣百論(650年), 俱舍論(654年), 大毘婆娑論(659年), 成唯識論(659년) 總八部에 달하는 新譯經論의 제목과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아울러 (二)起信論別記, (三)二障義, (四)梵網經菩薩戒本私記, (九)大乘起信論疏, (十)大慧度經宗要, (十二)涅槃經宗要, (十四)阿彌陀經疏, (十五)無量壽經宗要, 그리고 本稿에서는 제외하는 (二十一)遊心安樂道도 『攝大乘論』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李平來博士가指摘했듯이 645年 玄奘이 譯出한 『攝大乘論世親釋』이 아니라 眞諦譯『攝大乘論』으로부터의 引用이다. 따라서 元曉가 玄奘譯攝大乘論을 보고 玄奘譯을 參照했을 可能性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攝大乘論의 引用問題의 解明은 금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위의 목록 중 新譯을 인용하지 않은 것을 A、新譯中에서 比較的 初期의 經論을 인용한 것을 B、654年 俱舍論 以後의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C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A (一) 發心修行章、(六)大乘六情懺悔、(十九)華嚴經疏
- B (二) 起信論別記、(三)二障義、(五)菩薩戒本持犯要記、(七)解深密經疏
(八) 菩, 薩瓔珞本業經疏、(九)大乘起信論疏、(十)大慧度經宗要
(十一) 法華經宗要、(十四)阿彌陀經疏、(十七)金剛三昧經論、
(二十) 十門和諍論
- C (四) 梵網經菩薩戒本私記、(十二)涅槃經宗要、(十三)彌勒上生經宗要
(十五) 無量壽經宗要、(十六)中辺分別論疏、(十八)判比量論

A에 관해서는 新譯經論의 제목 및 인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元曉의 初期 著述群임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편의상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B와 C에 있어서는 新譯經論이 일시에 전래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645년부터 659년까지의 15年 동안에 한번도 新羅에 新譯經論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당시의 中國과 新羅의 關係로부터 볼 때 自然스럽지 않기 때문에、新譯經

論의 譯出의 年次的 間격을 고려하여 시험적으로 新羅에의 新譯經論의 도입에 몇갈래의 현상을 想定한 區分이다. 이 區分의 是非는 元曉의 著述을 分析한 段階에서 論하려고 한다.

3. 諸史料로부터 본 元曉의 著述年次

現存하는 史料 중에서 元曉에 관한 記載가 보이는 것을 (一)韓國所傳史料*1、(二)中國所傳史料、(三)日本所傳史料*2로 區分·整理하면, 諸宗諸師의 註書를 합한다면 膨大한 量에 이르겠지만, 註書類를 제외하고 主要한 것만을 列舉하더라도 아래와 같다.

- (一) - 1 「新羅誓幢和尚塔碑」
- 2 「三國史記」卷四六列傳第六薛聰條
- 3 「三國遺事」卷一紀異第一太宗春秋公條
 - 卷三塔像第四東京興輪寺金堂十聖條
 - 卷三塔像第四前後所將舍利條
 - 卷三塔像第四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
 - 卷四義解第五二惠同塵條
 - 卷四義解第五元曉不羈條
 - 卷四義解第五義湘傳教
 - 卷四義解第五蛇福不言條
 - 卷五感通第七廣德嚴莊條
 - 卷五避隱第八朗智乘雲普賢樹條
- 4 「新編諸宗教藏總」
- 5 「高麗史」卷第十一肅宗六年條
- (二) - 1 「宋高僧傳」卷第四唐新羅國義湘傳條
 - 卷第四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條
- 2 「賢首國師寄海東書」
- (三) - 1 「遊心安樂道私記」

이 가운데 (三)-1은、日本 淨土宗의 義海(-1752-)의 『遊心安樂道』에 대한 注釋書로서 元曉의 傳도 기록되어 있는 흥미로운 문헌이기는 하나, 本稿에서는 僞作에 대한 注釋書라는 점과 日本의 江戸時代に 成立했다는 점을 보아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들 史料 중에서 著述名을 비롯해서 元曉의 著述에 關하여 분명히 기재하고 있는 것은 韓國所傳史料뿐으로、著述目錄인 高麗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以外에는、

- (一) - 1 『新羅誓幢和尚塔碑』-十門和諍論·花嚴宗要
- 2 『三國史記』卷四六列傳第六薛聰條-金剛三昧論
- 3 『三國遺事』卷四義解第五二惠同塵條-元曉撰諸經疏
卷四義解第五元曉不羈條-華嚴疏·三昧經疏
卷五避隱第八朗智乘雲普賢樹條-初章觀文·安身事心論

이처럼 그 數도 적고 書名도 限定되어 있으며、또한 著述年次도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한정된 史料로 元曉의 著述年次를 살피려고 하는 것은 거의 無謀에 가깝다할 수 있지만、시험삼아 해 보고자 한다. (一)-1 및 (一)-2 에는 著述名은 보이나 그 著述年次를 보여주는 記事는 보이지 않고、(一)-3 의 『三國遺事』에만 약간 보일 따름이다.

우선 『三國遺事』二 惠同塵條에 「(惠空)晩年移止恒沙寺。時元曉撰諸經疏。每就師質疑」라고 되어 있다. 이 記事가 사실이라고 해도 惠空晩年을 언제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 二惠同塵條에 記載된 善德女王的 靈廟寺에의 行幸、明朗의 金剛寺落成 등의 時期가 靈廟寺創建*3과 明朗이 唐으로부터 歸國하는 것*4이 635年이라는 것으로부터 惠空晩年은 빨라야 善德女王代、혹은 그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惠空晩年에 元曉가 經疏를 저술하면서 惠空에게 質疑했다는 그 元曉의 年齡을 생각할 때、아울러 善德王代라 하면 635年부터 647년까지이므로 元曉가 19歲부터 30歲까지의 사이에 著述

을 시작했다는 것이 되어、時間的으로 범위가 너무 넓어 좁히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元曉不羈條에는 華嚴經疏와 三昧經疏의 著述名이 보인다. 三昧經疏의 著述年次는 알 수 없지만、다만 「曾住芬皇寺。纂華嚴經疏。至第四十廻向品。終乃絕筆」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華嚴經疏가 元曉晩年の 著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三國遺事』 朗智乘雲普賢樹條에는 「元曉住磻高寺。常往謁智。令著初章觀文及安身事心論」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前文의 「通到山之時。乃文武王即位元年辛酉歲也」의 文武王即位元年(661)에 주목해서 元曉의 初章觀文과 安身事心論의 著述시기를 661年頃、즉 元曉 45·6歲로 하는 경향도 있지만、그것은 通을 朗智로 해석한 誤讀이다*5. 661년에 智通이 朗智에게 갔다고 해도 朗智는 그 이전에 靈鷲山에 있었기 때문에、하등 661年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쨌든 朗智의 권유로 지었다는 『初章觀文』·『安身事心論』은 661年보다 이전에 쓰여졌다고 생각되지만 역시 年次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現存하는 傳記關係의 史料로부터는 元曉의 大部에 이르는 著述年次 및 著述順序를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華嚴經疏』가 元曉最後期の 著述임을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

4. 元曉著述에 引用된 經論으로부터 본 著述年次

元曉의 著述로부터、특히 元曉著述에 引用된 經論을 통해서 著述年次를 考察하려는 시도로 많은 成果가 發表되었다. 『起信論疏』와 『起信論別記』가 逆順으로 저술되었다는 見解도 있지만*6 인용된 經論에 주목하면 『起信論疏』에 『起信論別記』가 인용되어 있는 이상 『起信論別記』→『起信論疏』라는 순서는 변할 수 없다. 이 방법의 선구자인 石井公成氏는

「元曉는 『起信論』 研究에서 出發하여 論中에 개개의 問題에 관하여 「一道障」이나 「二障義」를 저술하는 한편 「起信論」과 思想的으로 근접한 經論에 注釋을 추가하여 그 위에 다시 「起信論」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海東疏」는 「別記」를 확장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는 원효 壯年期의 研鑽의 成果가 도입되어 있다」라고 하며, 「起信論別記」를 비롯해서

「起信論別記」→「一道章」→「二障義」→「起信論疏」→「金剛三昧經論」

의 順序를 상정하고, 관련된 저술을 연결시켜 도식화하고 있다*7. 확실히 「一道章」은 「二障義」에 인용되고*8 「二障義」는 「起信論疏」에 인용되며*9 그리고 「起信論疏」는 「金剛三昧經論」에 인용되고 있으므로*10 타당한 順序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의 경우, 必然的으로 元曉의 佛敎研究의 出發點을 「起信論」으로 보기 때문에 「起信論別記」 및 「起信論疏」가 重要한 位置를 점하게 된다. 그것은 「起信論別記」에 新譯 以外에도 상당히 많은 經論이 研究되어 인용되고 있는 점, 그리고 李平來氏 등이 말하듯이*11 「大乘起信論別記」에서 「起信論」을 評價하면서 元曉自身이

「其爲論也。無所不立。無所不破。如中觀論十二門論等。遍破諸執。亦破於破而不還許能破所破。是謂往而不遍論也。其瑜伽論攝大乘等。通立深淺。判於法門。而不融遺自所立法。是謂與而不奪論也。今此論者。既智既仁。亦玄亦博。無不立而自遺。無不破而還許而還許者。顯彼往者往極而遍立。而自遺者。明此與者窮與而奪。是謂諸論之祖宗。群諍之評主也」*12

라 하여 般若思想이나 唯識思想보다도 우수하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元曉研究의 한 가지의 視點으로서 首肯할 수 있다.

그렇다면 「起信論別記」를 著述할 즈음에는 이미 舊譯은 물론, 當時 가지고 있던 新譯을 모두 소화했음은 明白하다. 「起信論別記」에

인용된 新譯經論이 전부 650년까지는 譯出된 것으로 미루어, 時間的 間격을 考慮에 넣지 않는다면 650年代 初期에 著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저술을 보면 『無量壽經宗要』는 現存하지 않는 『楞伽經料簡』을 인용하고 있고*13, 『涅槃經宗要』는 現存하지 않는 『楞伽經疏』 및 『楞伽經宗要』를 인용하고 있다*14. 그러나 『楞伽經』을 자주 인용하는 『起信論別記』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지만 『起信論疏』에는 『楞伽經宗要』가 인용되어 있다*15. 따라서 『楞伽經料簡』과 『楞伽經疏』의 저술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楞伽經宗要』는 『起信論別記』와 『起信論疏』의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전에 筆者는 「元曉の法華經觀に於ける諸問題」라는 題下에 『法華經』을 인용하고 있는 元曉의 著述을 통하여 원효 저술의 先後問題를 論한 적이 있지만*16 지금은 本論에서 高찰한 元曉의 新譯引用으로부터

- a、 『法華經宗要』 · 『大慧度經宗要』
- ↓
- b、 『起信論疏』
- ↓
- c、 『金剛三昧經論』
- ↓
- d、 『涅槃經宗要』 · 『彌勒上生經宗要』

이상의 順序로 正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a와 b의 區別은 『大慧度經宗要』 著述時에는 天台의 敎判을 引用하지 않았고, 『起信論疏』를 저술할 때에는 天台의 止觀을 參照한 것에 의한 구분이다. 筆者는 『大慧度經宗要』 著述時에는 天台의 典籍이 入手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앞에서 元曉의 新譯經論의 인용에 의해 區分한 ABC를 元曉의 著述初期, 著述中期, 著述後期の 구분에 맞추어 추찰해 보기로 한다.

A에서 (一)發心修行章은 出家 및 修行者를 賞贊하는 성격이 있어 還俗以前 즉 654年에서 661年 사이보다 以前에 著述된 것으로, 『起信論別記』보다도 앞서 著述된 것으로 생각된다. (六)大乘六情懺悔는 著書의 性格上 引用經論은 하나도 없지만, 自身과 衆生과의 距離感이 보이지 않아 著述後期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十九)華嚴經疏는 元曉不羈條에 기록되어 있듯이 第四十廻向品까지 써내려간 것으로 생각되어 元曉最後期の 것으로 한다.

B에서, (二)起信論別記와 (九)起信論疏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三)二障義·(十一)法華經宗要·(十)大慧度經宗要를 거론할 수 있는데, (九)起信論疏와 (十七)金剛三昧經論과의 사이에 들어가는 著述은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 결국 (五)菩薩戒本持犯要記·(七)解深密經疏·(八)菩薩瓔珞本業經疏·(十四)阿彌陀經疏·(二十)十門和諍論의 五部の 先後問題이다.

C에서, 『成唯識論』을 인용하고 있는 것과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면 (十二)涅槃經宗要·(十三)彌勒上生經宗要·(十六)中辺分別論疏의 그룹과 (四)梵網經菩薩戒本私記·(十五)無量壽經宗要·(十八)判比量論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判比量論』이 唯一하게 스스로 671年の 作이라고 明記하고 있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著述年次를 정리하면

著述初期(650年前後)

初章觀文、安身事心論、(一)發心修行章

著述中期(650年 중엽부터)

(二)起信論別記

- ↓
- (三) 二章義、(十) 大慧度經宗要、(十一) 法華經宗要、楞伽經宗要
- ↓
- (九) 起信論疏
- ↓
- (十七) 金剛三昧經論不明、
- (五) 菩薩戒本持犯要記、(七) 解深密經疏、(八) 菩薩瓔珞本業經疏
- (十四) 阿彌陀經疏、(二十) 十門和諍論、楞伽經料簡、楞伽經疏
著述後期
- (十三) 彌勒上生經宗要、(十二) 涅槃經宗要、(十六) 中辺分別論
- ↓
- (四) 梵網經菩薩戒本私記、(十五) 無量壽經宗要、(十八) 判比
量論 (六七一年)
- ↓
- (十九) 華嚴經疏
不明、(六) 大乘六情懺悔

以上과 같이 比定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元曉의 著述과 그 思想

이상으로 元曉의 著述順次를 대략적으로 推定해 보았다. 본작에서는 著述內容을 檢討하면서 推定の 妥當性을 檢證하고자 한다. 우선 元曉의 개개의 著述에 보이는 出家·在家(1)、戒律(2) 및 本研究에 特히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개념(3)을 中心으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一) 發心修行章(『韓國佛教全書』第一冊)

(1)-出家·在家의 용례 없음

(2)-1 雖有才智居邑家者。諸佛是人生悲憂心。設無道行住山室者衆聖是人生歡喜心。

雖有才學無戒行者。如寶所導而不起行。(841上中)

2 人惡尾蟲不辨淨穢。聖憎沙門不辨淨穢。棄世間喧乘空天上。戒爲善梯。是故破戒爲他福田。

如折翼鳥負龜翔空。自罪未脫。

他罪不贖然豈無戒行受他供給。(841中)

(3)-1 衆生衆生。輪迴火宅門。於無量世貪欲不捨。(841上)

2 行者心淨諸天共讚。道人戀色善神捨離(841中)

(二) 起信論別記(『韓國佛教全書』第一冊)

(1)-出家·在家的 용례 없음

(2)-如本業經云。是信相善菩薩。於十千劫。行十戒法。當入十信心。入初住位 (697上)

(三) 二障義(『韓國佛教全書』第一冊)

(1)-出家·在家的 용례 없음

(2)-1 於欲界對治修中。有六迷執。除邪見見取。戒禁取。疑色無色界有五迷執(789中)

-2 謂除二見。餘二諦下各有七種。謂除二見及除戒取。上二界中各除瞋恚(799中)

-3 所以戒取。唯迷苦道者凡論戒取不出二種。一獨頭戒取。緣邪戒事計爲因等。二足上戒取。緣自邪見計爲道等。獨頭戒取。是緣苦集而於集諦。非正相返於因計因故。若望苦諦卽爲正返於果計因故。是故但爲見苦所斷。足上戒取唯緣道下謗道邪見計以爲道。於餘邪見不計爲道。所以然者。由求道心。起見謗道。求得此見還計爲道。謗餘三諦。不由求道。是故彼見不計爲道。

是故戒取不通集滅。脩所斷中所以不說(799下)

- 4 損伏差別有其三種。一遠離損伏。謂如愛持禁戒
遠離惡緣。由是勢力不起惡故(807上)

(四) 梵網經菩薩戒本私記

- (1)-1 亦約人道論者。犯出家者爲重。犯在家者爲輕重。
持戒破戒亦爾。

下言乃至畜生女及非道行姪者。

約在家菩薩。故作是說。

謂若在家菩薩者不斷正姪。(598下)

- 2 問何故在家菩薩不斷正姪。答優婆塞戒經云。

若得物者四分。以一分與父母妻子。

以一分販賣。以二分畜積。故知有自妻。

亦仁王經云。輪王者從地前至於第十地菩薩。

故知在家菩薩者。不斷正姪(599上)

- 3 若簡所謗人者。受菩薩戒四衆重過。

謂以出家比丘及比丘尼在家二衆有根十重

七逆等謗。正犯此重戒。若舉輕罪謗者犯輕罪(600下)

- 4 如仁王經中乃至廣說。失王位者。明失在家位。

失比丘及比丘尼者。明失出家位也(604上)

- (2)-戒에 관하여多數의 용례 있음

(五) 菩薩戒本持犯要記

- (1)-或立在家菩薩六重。謂十重內在前六也(581中)

- (2)-菩薩戒者。返流歸源之大津。去邪就正之要門也(581上)

- (3)-食減佛法。一由貪故。二由慢故。由貪故者。如有一類。

閑去靜慮。離諸散亂。攝心禪門。由心澄靜髣髴有見。

或由邪神加力令識。于時由自少聞不別邪正。

又欲引致名利恭敬。隨所見識。令他聞知。耀諸世人。

咸疑是聖。此由獨揚似聖之迹。普抑諸僧。
爲無可歸。爲破佛法。故得重罪。是謂諸僧之大賊也
(581下)

(六) 大乘六情懺悔(『韓國佛教全書』第一冊)

- (1)-出家·在家的 용례 없음
- (2)-戒에 관한 용례 없음
- (3)-1 我及衆生無始以來。無明所醉。作罪無量(842上)
-2 我及衆生無始已來。不解諸法。本來無生(842下)
-3 我及衆生。唯寢長夢。妄計爲實。
遠順六塵男女二相(842下)

(七) 解深密經疏(『韓國佛教全書』第一冊)

- (1)-出家·在家的 용례 없음
- (2)-戒에 관한 용례 없음
- (3)-衆生 및 菩薩 등의 용례 없음

(八) 菩薩瓔珞本業經疏(『韓國佛教全書』第一冊)

- (1)-1 具足成就法明精進、次第進入一切諸地。乃至現捨天壽。
降神世間。出家成道轉法輪。入涅槃故(522中)
- (2)-1 離忍伏人中業道者。微細犯戒種種業行人道多起故名人中業。
第二地障有二之中第二種種業行無明也(501下)
-2 戒盜見者。卽是戒取。計邪因故(502中)
-3 其人以下第五修行。於中有二。先明十信。後顯十戒。
言十善者。謂遮十惡。五八十戒者。是攝律儀戒。
六波羅密戒者。是攝善法戒也(504上)
-4 第二中言常化衆生者。內持戒行。外導衆生故。
名饒益也(505上)
-5 以正無相者。具足正戒。遠離邪非。

而不取戒及持犯相故(506中)

- 6 初中而言受樓果者。謂經說五戒十善受人天果。
如來爲化下劣衆生。畏三途苦求人天樂。
背三業惡行諸善法(511下-512上)
- 7 爲聖財者。良由信爲衆德之基。施爲出信之利。
戒能除劫財難(513上)
- 8 若有得聞如來戒香。鼻得清淨(518下)
- 9 此下第二大衆受學。受者受戒。學者學行。
不起一坐而受十戒。仍學六入從始至終(521上)
- 10 受中有三。謂標釋結。標者舉信標戒。
要先起信方受戒故。始行以下第二廣釋。
於中有四。一者受戒法用。二者佛告以下受戒方便。
此中有三。先三禮三寶。次敬受四依。後卽悔過。
若准小乘受戒羯磨。此中敬受四歸。應是正爲授戒。
但尋此中。經文之勢。此敬受文。非正授戒。
以先受後悔不應理故。
故判此文爲方便也。如是以下第三明正授戒。
於中有三。一者牒前悔過標正與受。二者正授十戒。
三者結歎戒德(521中)
- 11 如是論文與此經違。如何和會。解云彼論述於三乘教意。
故有捨法犯戒有失。依三乘教發心菩薩。心不全故。
不堅固故。今此經者是一乘教。故無捨法犯而不失。
依是發心與前返持。且止乘論。還釋本文。
爾時衆中以下。第三總結受戒。卽從坐起受時佛戒者。
此一坐始起受戒。不起此坐入六入故(521下)
- 12 初中言脩十戒滿足入初住位者。是明入位(521下-522上)
- 13 行不虛妄精進。攝取施戒忍多聞等及不放逸。乃至道場。
不中息故(522上)
- 14 言七淨者。瑜伽論云。云何名爲七種清淨。一戒清淨(523上)

-15 今此文言土戒者是第一淨也(523上)

(九) 大乘起信論疏(『韓國佛教全書』第一冊)

(1)-若出家人。應誦戒律。若在家人。應誦菩薩戒本。

若誦三歸五戒等。鬼便却行匍匐而出也(729下)

(2)-1 汝破戒種。我今持戒。終不畏汝(729下)

-2 持戒清淨(701上、728上) 등

(十) 大慧度經宗要(『韓國佛教全書』第一冊)

(1)-出家·在家的 용례 없음

(2)-戒에 관한 용례 없음

(3)-世界悉檀者有法從緣和合故有無別性。

如車輻輳輻軸輞和合故有無別事。

人亦如是五衆和合故有無別人也(485中)

(十一) 法華經宗要(『韓國佛教全書』第一冊)

(1)-出家·在家的 용례 없음

(2)-戒에 관한 용례 없음

(3)-1 無一衆生而非佛子。所以廣大。

此衆生界卽涅槃界(488中)

-2 二者作因言性因者。

一切衆生有佛性爲三身果而作因故(489上)

(十二) 涅槃經宗要(『韓國佛教全書』第一冊)

(1)-出家·在家的 용례 없음

(2)-1 如長壽品言。若於三法修異相者。清淨三歸卽無依處。

所有禁戒皆不具足。尙不能得聲聞緣覺菩提之果。

何況能得無上菩提。是文欲明若二乘人入。

觀之時唯取三寶人法異相不證三寶同體人空。

卽不能具無樓聖戒(540中)

-2 一佛初成道已爲提胃等說五戒十善人天教門(546中)

-3 論中釋言。佛制三衣不畜得罪。何犯戒爲行施耶。

以此在於十二年前佛未制戒。

是故不犯是以文證非局在於十二年後(546中)

(3)-1 統衆典之部分歸萬流之一味開佛

意之至公和百家之異諍(524中)

-2 一切衆生悉有佛性(多數있음)

(十三) 彌勒上生經宗要(『韓國佛教全書』第一冊)

(1)-如觀藥王藥上經中釋迦佛言。我昔於妙光佛末法中出家
(551中)

(2)-1 汝所說三人。是吾先所化。九十六億人受持五戒捨(552上)

-2 下品之人。脩施戒等種種善業(549上)

(3)-上品之人。或脩觀佛三昧。或因懺悔行法。卽於現身。

得見彌勒。隨心優劣。見形大小。此如觀佛三昧海經

及大方等陀羅尼經說也。中品之人。或脩觀佛三昧。

或因作諸淨業捨此身後。生兜率天。

得見彌勒此不退轉。是故上生經所說也。

下品之人。脩施戒等種種善業。依此發願。願見彌勒。

捨此身後。隨業受生。乃至彌勒成道之時。

要見世尊三會得度。是如下生成佛經說(549上)

(十四) 阿彌陀經疏(『韓國佛教全書』第一冊)

(1)-迦留陀夷。此云黑上。此是悉達未出家時師也(564上)

(2)-案云。此言淨華衆者。謂得七種淨華之衆。何等爲七。

一者戒淨。二者心淨。三者見淨。四度疑淨。五道非
道知見淨。六行知見淨。七行斷知見淨(565上)

(3)-1 第二辯經宗致者。此經直以超過三界二種清淨。以爲其宗。

令諸衆生於無上道得不退轉。以爲意致。何者名爲二種清淨。

如論說言。上清淨有二種

一者器世間清淨。二者衆生世間清淨(563上)

- 2 今此經宗二種清淨。正示第四正定聚門。不定聲聞及說凡夫亦得生故(563中)

(十五) 無量壽經宗要(『韓國佛教全書』第一冊)

(1)-出家·在家的 용례 없음

(2)-戒에 關한 용례 없음

(3)-1 解云。如是十念。既非凡夫。當知初地以上菩薩。乃能具足十念。於純淨土。爲下輩因。是爲隱密義之十念(558下)

- 2 下品下生者。或有衆生。作不善業。五逆十惡。具諸不善。臨命終時。遇善知識。爲說妙法。教令念佛。若不能念者。應稱無量壽佛。如是至心。令聲不絕。具足十念。稱南無佛。稱佛名故。於念念中。除八十億。劫生死罪。命終之後。即得往生(559上)

- 3 此等十念。不雜餘念。行者亦爾。若念佛名。若念佛相等。無間念佛。乃至十念。如是至心。名爲十念。此是顯了十念相也(559上)

(十六) 中辺分別論疏(『韓國佛教全書』第一冊)

(1)-出家·在家的 용례 없음

(2)-1 第三明體性者。用合建立。有三十七論其體性。不出十法。謂戒思受念定慧勤信安捨。此中戒者。謂表無表色法所攝。餘九皆是心法所攝。於中思受遍行中二。念定慧者別境中三。勤信安捨在善大地。依此十法立三十七。

開戒爲三正語業命(820上)

그 밖에, 施戒·持戒 등의 用例가 있다.

- (3)-1 初中言隨不倒有倒者。謂凡夫位。若約二乘。從亭心觀。至世第一法。若就菩薩。十信以上盡十廻向。隨順見道。故隨不倒。未離見或。故言有倒(832中)
- 2 菩薩不爲滅離故脩者。簡異二乘。常在生死。度群生故。非不爲滅離者。簡異凡夫。於內心中。離諸鄣故。但爲至得無住處涅槃者。離凡夫執。不住流轉。異二乘著。不住寂靜。是名無住處涅槃也(832下)

(十七) 金剛三昧經論(『韓國佛教全書』第一冊)

- (1)-1 菩薩。如是之人。不在住二相。雖不出家。不住在家故(647上)
- 2 初中亦有四種勝利。一者離離。不墮道俗二邊相故。如經如是之人。不在二相。雖不出家。不住在家故(647上中)
- 3 大力菩薩言。不可思議。如是之人。非出家。非不出家(647中)
- (2) 不住戒、三戒、三聚戒 등

(十八) 判比量論(『韓國佛教全書』第一冊)

- (1)-出家·在家的 용례 없음
- (2)-戒에 관한 용례 없음
- (3)-無性有情必當作佛。以有心故。如有性者。此因不定。故成不難。爲如諸佛以有心故。非當作佛。爲如菩薩以有心故。必當作佛。前別立因言。以未成佛之有情故。

此因亦有他不定過。爲如菩薩種性。
爲如決定二乘。若爲避此更立宗言。
無性性有情決定二乘。皆當作佛。
以未成佛有情攝故。猶如菩薩
此有求難故成不定。如是三人。非當作佛。
以無大乘無樓種子而非菩薩種性攝故。
如木石等諸無情物。又有比量相違過失。
謂五種性中餘四種性。墮地獄時應有四德。
許作佛故。如菩薩姓。許則違教。不許違理。
此違自語比量過也(816中)

(十九) 十門和諍論(『韓國佛教全書』第一冊)

- (1)-出家·在家的 용례 없음
- (2)-戒에 관한 용례 없음

(二十) 華嚴經疏(『韓國佛教全書』第一冊)

- (1)-出家·在家的 용례 없음
- (2)-戒에 관한 용례 없음

以上과 같이 出家·在家的 용례가 보이는 것은 (四)梵網經菩薩戒本私記、(五)菩薩戒本持犯要記、(八)菩薩瓔珞本業經疏、(九)大乘起信論疏、(十三)彌勒上生經宗要、(十四)阿彌陀經疏、(十七)金剛三昧經論이지만, (八)·(十三)·(十四)에 나타난 「出家」는 佛陀의 出家를 說하기 위해 쓰인 것에 지나지 않아, (四)·(五)·(九)·(十七)의 使用例와는 다르다. 그리고 (九)大乘起信論疏에서는 단지 出家人과 在家人이 獨송해야 하는 戒本의 차이를 서술하고 있다. (五)菩薩戒本持犯記에는 在家人이 지닐 菩薩戒에 대한 說明과 「在家菩薩」이라는 용례가 보이며, (四)梵網經菩薩戒本私記에는 出家·在가에 대한 說明과 아울러 「在家菩薩」·「出家菩薩」에 대한 說明도 있어

(五)보다도 詳細하다. 또한 (十七)金剛三昧經論에는 「在家菩薩」이라는 용례는 보이지 않지만 「道俗」이라 하여 出家와 在家를 同一視하고 있는 용어가 있다.

다음으로 戒의 용례를 살펴보자. 戒의 용례가 쓰이지 않은 것은 (六)大乘六情懺悔、(七)解深密教疏、(十)大慧度經宗要、(十一)法華經宗要、(十五)無量壽經宗要、(十八)判比量論、(十九)十門和諍論、(二十)華嚴經疏로서, 나머지 十二部에는 그 용례가 보인다. 元曉의 戒律思想을 論할 때 중시되는 것이 (一)發心修行章、(四)梵網經菩薩戒本私記、(五)菩薩戒本持犯要記、(六)大乘六情懺悔、(八)菩薩瓔珞本業經疏의 五部이지만, (六)에는 戒에 關한 직접적인 용례가 없으며, 序文과 下卷만이 現存하는 (八)에는 元曉의 戒律觀이라 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元曉의 戒律思想에 關한 연구는 (一)·(四)·(五)를 中心으로 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特히 詳細한 (四)梵網經菩薩戒本私記가 戒律思想에 있어서는 最後期에 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앞서 추정 한 元曉의 著述順次에 비추어 보면, 우선 (一)發心修行章은 前述한 바와 같으며, 또한 (一)(2)-1~3에서 알 수 있듯이 修行者를 賞贊·顯彰하는 경향이 강해 著述初期의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八)菩薩瓔珞本業經疏와 (五)菩薩戒本持犯要記의 前後關係는 확실하지 않지만, (四)梵網經菩薩戒本私記가 前二部보다 후에 撰述되었음은, (五)보다 (四)가 설명이 詳細하고 出家·在家의 說明에서 在家菩薩의 說明으로 전개되어 마치 (五)를 補足하는 듯한 點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六)大乘六情懺悔는 「今佛前深生慚愧。發菩提心誠心懺悔」라 하는 그 懺悔書의 性格 때문인지 引用經論도 없고 出家·在家·戒 등의 용례도 없는데, 「我及衆生」이라는 表現이 몇차례 보여 自身과 衆生간의 距離感이 없고, 또 「今於此處蓮花藏界。盧舍那佛坐蓮花臺」라 하여 華嚴淨土를 說示하고 있는 것에서도 後期의 저술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在家의 菩薩의 自覺으로부터 發展한 것이 (六)이라고 하는 주장의 妥當性을 찾을 수 있

다. 비록 戒律關係의 著述에 한정되었지만, 지금까지 元曉의 著述順次를 推定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結論에 도달할 수 있었다.

6. 結 語

지금까지 元曉의 現存著述에 보이는 新譯引用 및 기타의 引用經論으로부터 著述의 대략적인 年次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筆者는 李箕永博士가 以前 「起信論疏는 理論原理의 提示이며, 金剛三昧經論은 實踐原理의 提示이다」라고 한 주장의 妥當性을 再確認하였다. 확실히 元曉는 佛敎가 무엇인가라는 疑問으로부터 佛敎理論을 考察했으며 理論에서 實踐으로 그 관심이 進行되어 갔다는 것이 저술의 順序를 보는 한 가능하다. 특히 後期에 淨土關係의 著述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도 그와 같은 견해를 推量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著述의 內容에 있어서는 『起信論疏』中에 「出家人」·「在家人」이라는 用例가 단 한번 對比的으로 사용되는 데 반해 『金剛三昧經論』에서는 出家·在家를 「道俗」이라고 하는 用例가 있으며, 또한 『梵網經菩薩戒本私記』에는 出家·在家의 說明과 함께 「在家菩薩」이라는 用例가 보인다. 이러한 것으로도 元曉의 關心이 出家에서 在家 그리고 一般衆生에까지 향해갔음을, 다시 말해서 理論에서 實踐으로 향해갔으며, 최종적으로 衆生濟度의 方便으로서의 敎化活動에 나아갔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필자가 本稿에서 시도한 것은 「元曉의 著述을 通해서 思想을」 보기 위한 그 準備段階로서 元曉의 現存著述의 新譯引用 元曉著述의 引用經論 및 若干의 元曉의 所傳으로부터 元曉著述의 順次를 推定한 것이며 하나의 方法論의 提示이다. 現存하는 元曉의 著述이 대부분 註釋書의 性格을 띠기 때문에 남은 課題가 적지 않음은 물론이다. 現存하는 著述에 引用되어 있는 經論의 引用頻度 및 引用箇所 등도 모두 考察의 대상으로 하여 나아가 元曉傳의 再考와 함께

남은 問題를 研究해 갈 것을 기약하며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 *1 本井信雄氏(「新羅元曉の傳記について」 『大谷學報』 第四一卷 第一號、1961年) 등 先學에 의하면, 그밖에도 『東國輿地勝覽』, 『東京雜記』, 『東文選』 등이 있다고 한다.
- *2 元曉에 關한 日本資料로서는, 堀池春峰氏 「華嚴經講說よりみた 良辯と審祥」(『南都佛教』 第三一、1973年)末尾의 「大安寺審祥 師經疏錄」, 石田茂作氏 『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佛教の研究』(東洋文庫、1930年)가 있으므로 參照바란다. 또한 日本佛教 各派의 저술에 인용된 元曉著述의 引用頻度로부터, 日本佛教의 62人의 諸師가 元曉의 著述 또는 이름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論한 拙稿 「日本に於ける元曉研究の現狀と課題－日本佛教に見られる 元曉教學の影響」(『韓國宗教史研究』韓國宗教史學會、1999年 春刊行豫定)도 參考가 된다면 기쁘겠다.
- *3 『三國史記』 卷第五新羅本紀第五善德王四年條
- *4 『三國遺事』 卷第五神呪第六明朗神印條
- *5 煩瑣하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三國遺事』 朗智乘雲普賢樹條의 原文을 인용하면,
 (前略)龍朔初。有沙彌智通伊亮公之家奴也。出家年七歲時。有鳥來鳴云。靈鷲去投朗智爲弟子。通聞之。尋訪此山。來憩於洞中樹下。忽見異人出。曰我是普大士。欲授汝戒品。故來爾因宣戒訖乃隱。通神心豁爾。智證頓圓。遂前行。路逢一僧。乃問朗智師何所住。僧曰。奚問朗智乎。通具陳神鳥之事。僧莞爾而笑曰。我是朗智。今茲堂前亦有鳥來報。有聖兒投師將至矣。宜出迎。故來迎爾。乃執手而嘆曰。靈鳥驚爾投吾報豫迎汝。是何祥也。殆山靈之陰助也。

傳云山主乃辨才天女。通聞之泣謝。投禮於師。既而將與授戒。通日豫於洞口樹下已蒙普賢大士乃授正戒。智嘆曰。善哉汝已親稟大士滿分之戒。我自生年來。夕惕慙懃。念遇至聖。而猶未能昭格。今汝已受。吾不及汝遠矣。反禮智通。因名其樹曰普賢。

通曰。法師住此其已久如。曰法興王丁未之歲。始寓足焉。不知今幾。通到山之時。乃文武王卽位元年辛酉歲也。計已一百三十五年矣。通後詣義湘之室。升堂親輿。頗資玄化。寔爲錐洞記主也。元曉住磻高寺時。常往謁智。令著初章觀文及安身事心論。曉撰訖。使隱士文善奉書馳達。

以上과 같이 朗智는 智, 智通은 通으로 區別하고 있어 誤讀의 餘地는 없다고 본다.

- *6 吉津宣英氏 『華嚴一乘思想の研究』(大東出版社、1991年、509頁)
- *7 石井公成氏 『華嚴思想の研究』(春秋社、1996年、195-197頁)
- *8 『二障義』(『韓國佛教全書』第一冊、802下)「此中餘四種道具如一道章說」
- *9 『起信論疏』(『韓國佛教全書』第一冊、716下・717下)는 「此無明相如二障章廣分別也」・「此義具如二障章說」 등 二障章 으로서 인용하고 있으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二障章란 『起信論二障章』이며 『二障義』의 別稱이다.
- *10 『金剛三昧經論』(『韓國佛教全書』第一冊、617下-618上)「於中三種羸生滅者。境界風所動。故言緣滅故相應心滅。於中委悉。如彼論疏中說也」
- *11 李平來氏 「大乘起信論研究(二)-新羅元曉의大乘起信論疏を中心として-」(『駒澤大學大學院佛教學研究會年報』14、1980年)

- *12 『大乘起信論別記』(『韓國佛教全書』第一冊、678上)
- *13 『無量壽經宗要』(『韓國佛教全書』第一冊、557下)
- *14 『涅槃經宗要』(『韓國佛教全書』第一冊、楞伽經疏의 引用은 546中、楞伽經宗要의 引用은 537中)
- *15 『起信論疏』(『韓國佛教全書』第一冊、707下)
- *16 拙稿「元曉の法華經觀に於ける諸問題」(『天台思想と東アジア文化の研究』山喜房 佛書林、1991年) 및 「元曉著述に於ける天台の影響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第39卷第1號、日本印度學佛教學會、1990年12月)